수전노의 돈 냄새 맡기

(막2:23~28)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전노의 돈 냄새 맡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수전노의 돈 냄새 맡기'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이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왜곡되게 마음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냄새 맡기라는 겁니다, 냄새 맡기.
굳이 더 정확히 좀 표현을 해 보자면, 행복한 냄새 맡기.
행복한 냄새 맡기가 이게 바로 안식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초점이 아니라, 행복한 냄새 맡기!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니 '수전노의 돈 냄새 맡기'라는 제목이 나온 것이지요.
언젠가 식당엘 갔습니다.
칼국수 집이었는데 방석이 있어서 깔고 앉았어요.
같이 간 분은 전혀 그걸 의식을 못하고 그냥 방석이려니 하고 앉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만 원짜리가 정말 이렇게 손으로 집으면 집어질 것같이 생생하게 천으로 된 그 방석 윗면에 인쇄가 돼있는 거예요.
어유~ 그 기분이 이상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앉아있는 분에게 그 앉아있는 방석이 지금 돈방석에 앉아계신 거라고.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돈방석에 앉았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돈방석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들 돈을 좋아합니다.

수전노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그 제목과 맞추어서 정의를 하자면, 돈을 호흡하는 자입니다.
문을 딱 닫아걸고 돈을 테이블에 잔뜩 쌓아둡니다.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아서 그 돈뭉치를 들고는 냄새를 맡아요, 아주 심호흡을 합니다, 돈다발을 코에다 갖다 대고.
이런 장면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으면서 '크~~' 하면서 그 냄새에 심취해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요 장면이 바로 안식입니다.

돈을 호흡한다는 것은, 돈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마음이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코로 호흡을 합니다만, 마음도 호흡을 해야 사는데, 마음의 호흡은 뭐라고요?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을 호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 안식은 뭐냐? 그 좋아하는 것의 냄새에 취하는 것이에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맞은편에 시끄럽게 전철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그 복잡하고 소란한 가운데 애기를 안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는 애기 머리에다가 엄마의 코를 갖다 들이 파묻고 그윽~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오거나 말거나 전철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아무 상념이 없이 그냥 아기의 잠자는 그 머리 위로 코를 묻고, 애기냄새를 맡는 엄마들을 종종 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안식이에요.
행복한 냄새 맡기! 황홀한 냄새 맡기! 황홀한 호흡! 짜릿한 호흡!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일주일 동안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동안에 무엇을 호흡합니까?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는 돈을 호흡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정하는 이유는, 너희가 끝까지 돈만 호흡하며 살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자르고 '돈 버는 일 다 멈춰라!'
그렇게 안식일이 돈 버는 일을 멈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냄새를 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해 해라.
마치 수전노가 돈다발을 들고 코에다 들이대고 돈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켜지고 하나님을 쌓아두고 하나님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 해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시간이 없어요.
자식 키웁니다, 사업합니다, 장사합니다, 공부합니다, 고기 잡습니다, 목공일 합니다, 집 짓습

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오직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냄새에만 집중해라.
너희 사업가가 돈 벌겠다고 돈 냄새 맡으면서 킁킁거리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냄새 맡기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을 쌓아두라, 그날 하루 만이라도 오직 무엇을 보던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신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밀밭을 가로 지르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충족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서는 아비아달로 나왔습니다마는 본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성결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너희가 삼일 동안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느냐? 성결하냐를 묻고 나서 성전 안에 들여보내고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자들에게는, 행동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안식일을 범하고 안 범하고의 문제로 발전될 수가 없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심으로써 벌어진 상황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호흡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금식 얘기할 때 우리가 금식을 일 년에 네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성전이 파괴 되었을 때 등등, 상실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해진 일자를 다 없애시고, 내용적으로 금식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신랑을 빼앗길 때.
마찬가지로 안식도,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참 의미가 모든 날에 다 적용이 돼버린 것이에요.

자! 장사를 하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공부를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사업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업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생업의 현장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생업의 현장 안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끔 허락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장사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성수주일의 문제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안식일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안식일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안식만 가지고 보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다 문 닫아걸고 돈 쌓아놓고 돈 냄새 맡으며 행복해 하듯이, 오직 하나님만 호흡하면서 하나님만 냄새 맡으면서 행복해 하는 게 안식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생업의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이게 왜 냄새 맡기입니까?
안식이라는 한자를 보면, 편안하다 할 때 그 安(안)자에다가, 쉴 息(식)자이면서 동시에 이 식(息)자가 호흡할 息(식)자가 됩니다. '숨 쉬다' 하는 息(식) 자가 되요.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하면, 편안하게 숨 쉬는 겁니다.
편안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전노가 돈을 잔뜩 쌓아두고 문 닫아걸고 아무도 모르게, 자식 놈도 모르게 자식 놈이 보면 뺏어가니까.
문 닫아걸고 돈 냄새 맡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 냄새가 방안에 가득할 때.
아기 엄마가 잠자는 아기 머리에다 코를 박고 냄새 맡을 때, 그 아기의 냄새가 얼마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줍니까?
바로 이 행복한 냄새 맡기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편안한~, 행복한 숨쉬기요, 행복한 냄새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생업의 모든 현장 속으로 다가 오셨습니다.
주님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주님의 냄새를 맡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로 하여금 정말로 행복한 냄새 맡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향기가 바로 나다, 내 냄새를 맡으면 행복해 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참 멋진 모습에 반가워서 가까이 갔는데 향수를 썼는데, 남자친구가 향수가 기가 막혀요, 상쾌한 게.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냄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 사람을 짜증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냄새 맡으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냄새를 맡다 보면은 예수님을 자꾸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예수님을 호흡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호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안식입니다 이제.
안식은 안식일이 없어져 버리고, 스물 네 시간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장사보다 먼저 할 것은 언제나 숨을 쉽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숨을 먼저 쉽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내가 숨을 먼저 쉽니다.
내가 숨 쉬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숨쉬기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그리고 무엇을 하던지 숨은 쉬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호흡한다는 게 뭐에요?
장사하기 전에 공기를 먼저 호흡하듯이, 장사하기 전에 내 마음으로 '아, 오늘은 얼마큼 벌어야 겠다'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자식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공부를 하는 모습이건 뭐 어떤 모습이건.

자식을 딱 볼 때 그 보이는 자식에게 직접 다가가면, 자식을 호흡하는 엄마가 됩니다.
돈 벌겠다고 돈 버는 일을 직접 다가가면, 돈을 호흡하는 집사님이 됩니다.
돈 버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살림 사는 일, 시장 보는 일.
시장 볼 때도 하이타이를 딱 봤다, 하이타이를 먼저 집지 마요.
하이타이를 먼저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앞에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있듯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숨쉬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숨 쉬는 게 안식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한 숨쉬기이고, 짜릿한 숨쉬기요, 황홀한 호흡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호흡하느냐?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에 다가가기 전에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호흡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호흡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하면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끌려들어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의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숨 쉬면, 예수님 냄새를 맡으면, 예수님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는 우리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늘 기운이 호흡하게 됩니다.
하늘 기운으로 호흡하게 될 때에,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한 숨쉬기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늘의 호흡으로, 하나님 냄새로 행복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사하도록 하시고, 아이를 키우도록 하시고,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무엇을 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안 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냄새 맡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호흡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냄새 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냄새 맡기는, 모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5감관으로 감지되어지는 대상에

대하여 내 마음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 냄새를 딱 맡을 때에, 자식을 볼 때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호흡할 때와 호흡하지 않을 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됩니다, 장사가 잘 안될 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 마음이 딱 가 붙으면 돈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공기를 먼저 호흡하고 장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먼저 호흡합니다.
마음으로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장사 현황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의 냄새를 딱 맡게 될 때 천국을 호흡하게 되면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되면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으로 하늘을 호흡하는 채로 나가게 돼서 손을 대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가 닿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릴 때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많이 벌린다고 기뻐하게 되면 수전노의 돈 냄새 맡기가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식이 말썽 피울 때도 예수님 냄새를 먼저 맡아 버리면, 자식이 말썽 피우는 그 상황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안식은 스물 네 시간 우리들에게서 확인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예수님 냄새를 통해서 하늘을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냄새 맡으려고 코를 킁킁 들이대면, 그곳이 하늘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주입구가 되어서, 천국을 호흡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밀밭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게 우리 마음의 코를 들이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냄새를 맡으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늘 바람이 불고, 신의 바람이 불면서 하늘을 호흡하는 자, 행복한 호흡! 황홀한 호흡을 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